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홍순명 <장밋빛 인생>

일시 : 2017년 3월 18일 (토) 오후 4: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홍순명 : 저는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로 회화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것이 2004년이니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지는 10년 조금 넘었네요. 40중반 이후부터 시작 한 거죠. 얼마 전부터는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계기는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혼자 팽목항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세상이 뭐 이렇지?'하는 생각을 하며 독에 앉아 있었죠. 초창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했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경찰, 피해자 유가족들, 그 사람들을 달랜답시고 방문한 다양한 사람들... 여러 종교인들의 천막들이 쪽 있었고, 이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서망 해수욕장이라고 폐쇄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들만 많고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목포로 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돌아와서 앉아 있고... 그렇게 그 장소에 다섯 번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문득 '도대체 이런 사건은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은 무엇일까?' 하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주변의 사물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무언가를 봤겠지? 뭔가를 알고 있지?' 하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이들을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에 가득 실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뭇가지, 돌멩이, 조개껍데기, 어촌에서 쓰다 버려진 물건들 등을 작업실로 가지고 온 뒤,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트럭을 렌트해서 가득 실어 오고 또 트럭에 가득 실어 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브제를 거기서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사용했던 것이 부엌에서 쓰는 랩입니다. 가장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재밌는 것이 투명한 랩을 계속 감으니까 겹쳐진 표면에서 메탈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쿠버다이빙도 했었는데, 물 속에서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숨 쉬는 공기가 방울이 되어 올라오면 그 공기방울은 메탈이나 수은 같은 느낌이 나요. 랩을 감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보이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 혼자 울컥해지면서 이 물건 하나하나가 물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숨결과 오버랩이 되며 '아 애들을 위해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80개 정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이 아이들을 위한 살풀이 같은 행동이었어요. 50대인 나는 이 사회에 책임이 있는 세대라고 나름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워온 오브제들을 감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예술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작업실에 놀러 와서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작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10년간 계속해서 그림만 그리던 세계를 벗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작은 물건들은 랩을 감아서 조각을 만들었고, 2~3m 되는 것들은 랩을 감은 위로 큰 캔버스 천을 씌우고 그 표면에 팽목항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림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떠올리며 입체작업도 하고, 다시 영상도 해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오던 <사이드 스케이프>도 지속되겠지만,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해요.

제게는 윌링앤딜링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김인선 대표가 나보다 후배이고, 그 세대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것이 절실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류하던 내 또래의 사람들 외에 앞으로 미술계의 중심이 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김인선 대표였던 거죠. 올해 3월 전시가 정해지고 서로 전시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일까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번 작업들입니다. '장밋빛 인생 (La vie en rose)'은 에디트 피아프라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죠. 불어에서 로즈(rose)라고 하면 장미도 되지만 동시에 핑크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4대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정치적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요. 내가 무엇을 했던가와 관계없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해오던 맥락, 내가 공부해오던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작업을 못했었어요. 중구난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며 고민을 하던 차에 나 스스로 만든 답은, 예를 들면 바둑을 둔다고 치면 바둑 판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 쪽에서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 저쪽에 다 말을 놓죠. 그리고 또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판이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내키는 대로 작업을 해도 몇 년 후에는 이들이 모여지면서 이렇게 해도 흥순명이고 저렇게 해도 흥순명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내키는 대로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가는 것들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지금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4대강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4대강을 그리는 것이 저에게 내키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전시의 제목처럼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는 영큼한 음모들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의 한강은 녹조를 핑크색으로 바꾼 거예요. 밝은 미래를 떠올려대면서 '이러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알고 보니 '뒤에서는 이렇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김인선 큐레이터와 작년 12월 말까지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이고 그것을 토대로 새 작업을 만들었고 1월, 2월 파주의 추운 작업실에서 열심히 두 달 동안 이 작업들을 해낸 거예요. 4대강 외의 다른 사건들도 그렸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 터키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이 있더라구요. 토목, 건축사업 하면서 돈을 떼어먹는 소위

토건족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작품 <Bobby & John Grey>의 경우, 에든버러의 바비라고 하는 강아지 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충견에 관한 이야기는 있죠. 일본에도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불이 나서 주인이 쓰러져 있는데 물에 자신의 몸을 적셔서 주인을 살렸다는 충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비는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의 묘에서 14년간 곁을 지키고 거기서 죽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고 난 후에 충성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었다는 15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유명하지요. 그 동네에 놀러간 사람들은 꼭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니 거의 다 거짓말이었죠. 강아지는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라는 설이 가장 강력하는데, 그냥 예쁘게 생긴 강아지한테 묘지지가 가끔씩 먹이를 던져주니까 계속 묘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개가 묘지에 사는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묘지를 지키는 강아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동네에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네 상권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죠. 또 동물보호협회나 애견협회 같은 곳에서도 기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몇 년 후 강아지는 죽지만 묘지주인과 그 앞에 있는 레스토랑의 주인이 비슷한 강아지를 또 데리고 와요. 14년이 지나 두 번째 강아지가 또 죽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려니까 강아지의 수명 때문에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가 계속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1859년도에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에 관한 책인데 출판 당시에는 이 책에 대한 반응이 별로였어요. 마침 다윈은 에든버러에서 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한 다음에 런던으로 가고 거기서 신학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다윈은 에든버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예요. 그런데 '종의 기원' 책을 낸 그 때가 바로 그 강아지 사건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 이야기를 들은 다윈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진화의 단계에서 충성심이란 매우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요. 이어서 다윈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고 종의 기원은 히트를 쳐요. 저 강아지 한 마리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얹혀있는 거죠.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로켓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보고 있어요. 진짜 아폴로가 달에 가긴 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 사진을 저는 막연하게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발자국이나 깃발 같은 이야기들을 증거로 반박들을 하지만 저는 '달에 갔다 온지 50년이 넘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쯤은 쉽게 달에 오고갈 수 있어야 해. 계속 안 가는 거 보면 처음부터 못간 건가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찾아보니까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인들은 로켓에는 관심이 없었고 미사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2차 대전에 일본에서 원폭이 터지잖아요. 비행기가 싣고 가서 떨어뜨렸는데 너무 위험한 방법이지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빠르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사일로 날려

버려야 하는 거죠. 대기권을 통과하는 속도가 1초에 8km를 갈 수 있어야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대요. 미사일과 비슷한 속도예요. 이게 맞물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요즘은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이렇듯 작가 자신이 재미를 느끼면 작업해 나가기가 좋잖아요.

모든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게 있겠죠. 이 전시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만족스러운 전시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흥미진진함을 주고 있고, 김인선 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주제를 얻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서 이번 전시가 내게는 성공한 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객 :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홍순명 :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에 거짓말들이 숨어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할 때 '장밋빛 미래'라고 부르죠. 이 사건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인데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 자신은 대부분 장밋빛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괴로운데... 이런 모습을 역설로 표현한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십여 년 전에 <장밋빛 인생> 시리즈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이야기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리즈를 200여개 그리다가 멈췄어요. 보통 저는 시작을 하면 좀 오랫동안 많이 해요. 그래서 핑크빛 물감을 많이 사놨는데 조금 사용하다가 마는 바람에 남은 물감이 너무 아까운거예요. 제 <사이드스케이프>에는 핑크빛이 거의 없거든요. 회색 혹은 청회색 톤이 많아서 핑크색 물감을 10여 년 동안 썩혀두고 있었는데 아까워서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이게 장밋빛 인생 시리즈의 탄생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헌데 점점 그리고 싶은 소재가 많아져서 핑크색을 또 더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객 : 그림을 왜 굳이 조각조각 내서 따로 그렸나요?

홍순명 :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고 있는 내 식재료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4대강 사진 자료를 구하고 포토샵으로 보정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그리기 시작해요.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형태가 없어지기를 바라요. 저의 방식이죠. 그때부터는 강아지나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그리파를 많이 그려서 그런지 그리기만 하면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캔버스를 모아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따로 그려요. 형태가 없는 걸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은 두 점 다 이곳에 설치하고 나서 전체 모습을 처음 봤어요. 작업실에 이만한 크기의 벽이 없기도 하고요. 일부러 따로 그리기 위해서 이것 그리다가 저것 그리다가 하기도 해요.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감 색을 자주 바꾸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색들을 그

려나가죠. 같은 색 부분을 그리다가 다 그리면 다른 색 부분을 그리고, 그 결과물이 트럭 같지 않고 강아지 같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가 제 눈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터치감, 분위기, 브러쉬의 속도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들이 없는 그림은 못 그리겠어요. 형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형태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죠. 이 정도의 형태는 제 데생능력으로 정확히 맞출 줄 알았는데 그려놓고 보니 빠뜨려진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형태는 묘사하고 싶지 않아서 큰 붓을 써요. 붓질을 하는 거죠. 형태를 묘사하는 것과 붓질을 하는 건 다르죠. 저에겐 붓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붓을 두고 큰 붓질, 작은 붓질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그 안에 강도 있고 트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터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저에게 그림의 실패와 성공은 투명도예요. 그것은 직접 비춰지는 투명함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림이 숨을 쉬어야 해요. 숨 실 구멍이 없으면 저에게는 실패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 겹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 겹을 그리면 어느 순간 그림이 불투명해 지면서 저에게는 숨구멍이 막혀버리는 느낌이에요. 넓적한 붓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구멍이 만들어지는 게 제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붓의 크기는 제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객 : 그리는 주제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가요?

홍순명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그리기 직전까지는 제게 이런 종류의 사건 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치스러운 지적 호기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풍을 그린다고든, 노을을 그린다고든 하는 것엔 만족도가 생기지 않으니 말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나서야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가 끝나는 순간 그 주제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저에게서 사라져요.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주제와 맞물려 하나의 작업이 완성 되겠죠. 한 작품은 이론과 실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지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끊어 버리죠. 그리고 완성이 된 이후 즉 지나간 그림에는 관심이 적어져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것 혹은 내일 그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기 전까지는 주제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작가인가, 무엇을 그리고 말하는 작가인가 하는 의미가 중요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림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에 관심을 버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평가는 또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작품에는 관심이 없는, 저는 그런 작가예요.

관객 :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주제가 위협을 받는다고거나 물성이나 조각 그림에 집중하다가 원래의 스토리가 바뀐다고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순명 : 그리는 과정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주제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인선 : 제가 작가님과 대화하는 동안 초반에 헛갈려 했던 것이, 작가님은 이런 저런 사회적 사건에 관심이 있고 요즘 항상 나가시는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는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건들을 캔버스에 담는 작업을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싫어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 법조인들을 만나 사건에 대해 캐묻고 알아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걸 하시겠어요?” 했더니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지화 하는 단계로 갈 때까지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게 뭔지 확실해지면 그림을 그리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화면으로 옮길 때에는 이미지일 뿐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무엇을 그려야겠다.’ 하는 과정까지의 동기부여에 필요한 것이 ‘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페인팅에만 접근하는구나 라고 나름 이해를 했어요.

홍순명 : 그런 거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왜 시작했는지가 나 스스로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안돼요. 사실 그게 꽤나 힘든 과정이죠. 주제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하면 제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대로 그림니다. 그때는 우주의 중심이 저죠.

정연두 : 작품을 설명하는 것과 딱 들어맞는 작품들이에요.

홍순명 : 대체로 훌륭한 작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무지 열심히 하거나. 제가 천재가 아닌 것은 판명이 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천재들을 흉내 낼 수 없는 거죠. 흉내를 내면 어색해 지니까 매번 자연스럽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저는 그걸 평생 힘들어 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겠죠.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부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왔어요. 헌데 어느 순간 그 성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이도 뭔가 반짝거림이 있어야 하는데, 나에겐 그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내 주변을 돌아봐도 천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재가 많으면 천재가 아닌 거죠. 천재의 조건은 희소성이니까요. 나의 좋은 면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나이가 들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는 게, 조금 뻘뻘해졌어요. 어떠한 질문에 답을 못 찾아도 그냥 해버려요. 이건 천재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고 그냥 조금 틀이 넓어진 거죠.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넓어진 느낌이랄까. 내년이면 저도 60대가 되는데 누군가가 예

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건 "No"입니다.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딱 한 가지, 체력만 빠
고... 말하다가 보니까 체력이 큰 부분이기도 하네요. 3년 전에 포장해서 넣어 두었던 짐을
다시 꺼내려고 하니깐 안 움직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넣었는데.. 이런 게 느껴질 때 조
금 괴롭긴 한데 딱 이것 뿐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가 더 좋아요. 그 이유 중 하나
가 지금처럼 쉽게 뻘뻘해질 수 있는 것. 나 혼자만의 틀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에게 보이면 그게 참 좋아요.

정연두 : 이 작품을 왜 그렸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작품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이 과정상에서 잊어버렸지만 전시가 되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닐까요.

홍순명 : 그림을 조각내서 그릴 때 연결 장면을 옆에 두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을 약간 노
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오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를 하죠. 사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큰 화면에 그리
다보면 이렇게 끊어지는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정
연두 선생님한테 저만의 감추고 있는 무기를 들킨 거 같네요. 저는 한 개, 한 개 따로 그리
면서 생기는 오차의 힘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따로 그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맛보는 거죠.

김인선 : 그러면 저번에 독일에서 개인전 하시면서 오프닝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걸도록 하
셨잖아요. 쪼개지는 그림인데 순서와 상관없이 걸게 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만드
는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건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더 극대화 한 것
인가요?

홍순명 : 그 경우는 지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가 작년 여름에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캔버스 100여 개가 하나가 되는 작품을 했어요. 길이가 20m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림이었고 7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었어요. 예
를 들면, 12개가 하나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30개가 하나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
으로 7개의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고 7개의 이미지를 그렸는
데, 그 이미지 7개가 뭐냐면 우파 미디어에서 미는 사진들과 좌파 미디어에서 많이 미는 사
진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뉴스의 이미지들을 골
고루 섞어서 7개의 그림을 그린 거죠. 다 합하면 캔버스가 100개 이었고요. 오프닝 날 오는
분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여기에는 7개의 이미지가 있으나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너희가 원래 그림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걸어다오. 진실이 숨겨지고 뒤죽박
죽 되어있는 그 상황을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날 온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걸어보라

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몇 피스의 그림들을 맞춰서 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약 30분 동안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만들어졌어요. 포장 뜯은 걸 쌓았더니 하얀 무덤이 되고, 그림이 다 걸리고 나니까 무슨 이미지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참 묘한 것이 그날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들어는 봤대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하튼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 상황을 상징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어요.

관객 : 지난번 미메시스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사이드스케이프>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봤는데, 그 때는 청회색이었죠. 지금은 장밋빛이라고 해서 분홍빛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청회색의 시대인데 장밋빛으로 바꾼 걸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 : 이 작품을 판매를 하실 때 작품을 하나하나 파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파시나요?

홍순명 : 누가 산다고 하면 팔죠. 판 부분은 새로 그리면 되죠.(웃음)

관객 : 아까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하나가 작가님에게는 똑같은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치하실 때는 다리가 기둥에 걸쳐져 있다거나, 혹은 전체가 세트여야 하는데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빠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작품의 전체 이미지 안에서는 다리라던가 귀퉁이라던가 하는 위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상자가 볼 때 하나의 전체 화면 안에서 다리, 물결, 그림자 이런 하나의 이미지가 물리적으로 맞는 게 중요한가요?

홍순명 : 전시는 결국 저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 관객 분들께 최소한의 친절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그런 배려로 한 행동이겠죠. 내가 어떤 화면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 옆의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죠. 제 방식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강이고 다리를 그린 것인데 그것이 빠지면 이야기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그림 안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시라는 것은 일단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만을 위한 전시라고 고집할 수는 없죠. 인간이 강력한 내공이 있어도 혼자서 살겠어요? 칭찬도 좀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전시를 할 때 내 머릿속에 두세 명을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한 명.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전시를 해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다빈치거나 니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한 두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소통을 해보는 거죠. 전시를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답을 얻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전시는 혼자만 좋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관객 : 핑크빛이 너무 이뻐요.

홍순명 : 제가 핑크색을 십년 전에 조금 써보고 본격적으로 처음 써 봤어요. 나는 청회색 계열을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황색, 노란색은 진짜 힘들었던 것이 이 색을 쓰면 화면이 점점 더러워져요. 그런데 핑크색과 빨간색을 쓰면서 너무 좋았어요. 뜻밖에 쉽게 다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붉은 계통이 노란색, 주황색처럼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힘들지 않았어요. 참 묘한 게 쉽게 그려진 그림들이 좋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그린 그림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는 오래 그리는 것보다 빨리 그리는 게 더 나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서예를 하셔서 옆에서 자주 보았었는데 한 장을 열심히 쓴다기보다는 수없이 쓴 여러 장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데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 : 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동양화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예에 대한 연관성, 영향을 받은 것을 들으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그릴수록 완성된 작업이 더 좋거든요. 작업의 노동시간이 작품의 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작품 절대 안 산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빠른 속도감이 제 작업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추구 하는 게 저의 작업 본질과 맞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명 :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작가가 그림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느냐를 보면서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는 저의 방식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다른 시리즈가 있는데 인물화를 그리고 있어요. 어머니 사진과 저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나에게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막 되 먹은 놈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라고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가 어떻게 대립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합성을 하면서 상당히 큰 사이즈로 그리고 있어요. 크게 그리다 보니 화면에 넓은 공간이 많죠. 그런 공간에 내가 어떤 터치를 쓰고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느낌으로 그려나가면서 근대와 현대의 갈등을 표현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인물화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작업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십 몇 년 전에 그림이라는 것에 빠져들면서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하나하나 다 해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풍경화였어요. 정물화는 재미가 없었고 인물화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무리 그려도 하나도 안 닳은 거예요. 아 이걸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풍경화를 했죠. 산이나 구름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형태에 연연하지 않고 붓놀림에 집중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풍경화에 점점 빠져들어 10년 동안 주로 풍경화를 그렸는데 우연한 계기에 세월호를 주제로 한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물화를 한동안 그렸고 최근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아지면서 어머니께 옛날 사진들을 보여 달라고 했죠. 사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 보았고 어머니도 오랜만에 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셨어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삶의 굴곡이 심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사신 분이예요. 사진을 통해 옛날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시절을 상상하다보면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해지죠. 작은 일이라도 모르던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내 인물화 시리즈의 시작이 되었고요.

관객 : 아까 작가님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객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변한 것 같으세요. 그런 계기가 있는지요?

홍순명 :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저에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작가로서 푸닥거리를 작품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뻐요. 그 기쁨만 있다면 작가의 일관된 작품세계에서 약간 삐딱해 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나에게 어떤 이론적 불편함이 없다면 나머지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랄까요?. 작품이 될 수 있는 주제의 일관된 기준을 슬쩍 옆으로 치워놓은 거죠.

관객 :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서 작품이 결정되는데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뻔뻔함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홍순명 :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변 좋게 대답해 주는 것,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현대의 미학이나 철학과 잘 맞아 떨어져서 제법 공부를 한 사람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는 걸 느끼게 해 주고 그로 인해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것.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연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란 말이나 글로 설명 되어지는 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거기서부터 진짜 예술이 시작 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느낌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 느낌이라는 건

객관적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의심 같은 게 생깁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이 좋은데 라고 말하면 나도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나는 좋아 보이는데 라는 정도까지는 굳이 설명 없이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 허용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차단해 버리면 시도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더라고요. ()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작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 자꾸 나이 얘기해서 민망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그것이 기쁨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굳이 나이를 안 먹어도 자기 작업에 대해서 아직 타인으로 부터 칭찬을 못 받은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좋아질 거라 믿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예술계 안에서는 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안 좋겠죠. 하지만 예술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분야가 아니겠어요? 재는 아니야 라며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면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은 많겠지만 그래도 너무 움츠리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작가였던 미국의 친구한테 들은 건데, 작가는 포기라는 DNA가 결핍된 인간이래요. 합리적인 사고로는 평생을 작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남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해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것 아닐까요. 자기비판을 계속 하는 것이 젊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